

Part 3

2024 주요결과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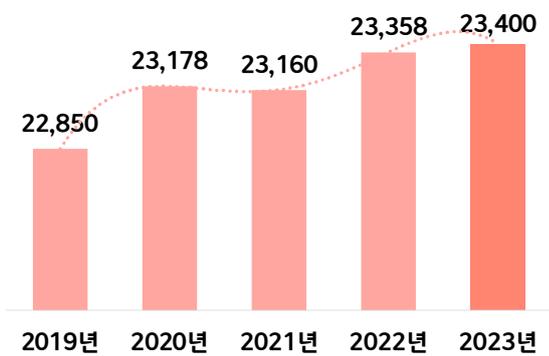
- 1 인구 항목
- 2 공통 항목
- 3 전라남도 항목
- 4 장성군 특성 항목

1. 인구 항목

- ▶ 장성군의 '주민등록인구'는 42,543명으로 2022년(43,146명) 대비 603명 감소함
- ▶ 장성군의 '세대' 수는 23,400세대로 2022년(23,358세대) 대비 42세대 증가했고,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2023년 장성군 '성별 인구 구성비'는 '남자' 51.5%, '여자' 48.5%로 2022년(51.4%, 48.6%)과 유사하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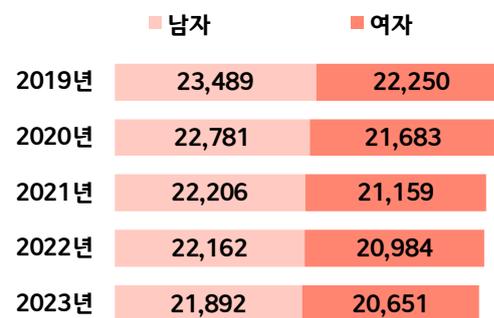
<< 세대 수 >>

(단위 : 세대)



<< 성별 인구 수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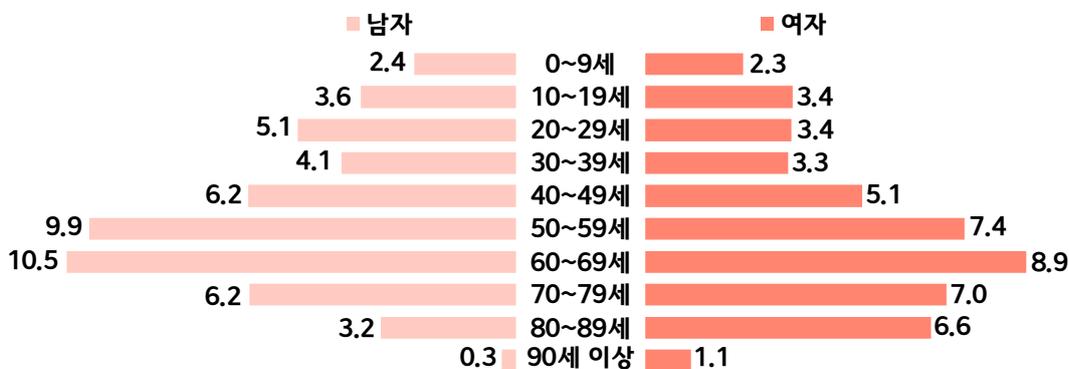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

- ▶ 2023년 장성군 60~69세 '인구'는 8,222명으로 장성군 전체 인구의 19.3%로 나타남
- ▶ 군민 중 70~79세는 13.2%, 80~89세는 9.8%, 90세 이상은 1.4%로 60세 이상의 군민은 전체 '인구'의 43.7%로 나타남
- ▶ 2023년 성별 '구성비'는 6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'남자'가 '여자' 대비 높게 나타나고,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'여자'가 '남자' 대비 높게 나타남

<< 성별, 연령별 인구 구성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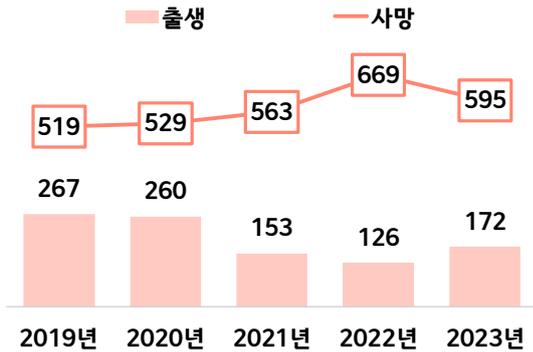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2023년 장성군의 ‘출생’ 수는 172명, ‘사망’ 수는 595명으로 나타남
- ▶ 2019년 이후 ‘출생’ 수는 감소, ‘사망’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, ‘출생’ 수는 2022년 (126명) 대비 46명 증가, ‘사망’ 수는 2022년(669명) 대비 74명 감소함
- ▶ 2023년 ‘자연증가율’은 -9.9명으로 2022년(-12.6명) 대비 2.7%p 증가했고, ‘인구성장률’은 -1.4%로 2022년(-0.5%) 대비 0.9%p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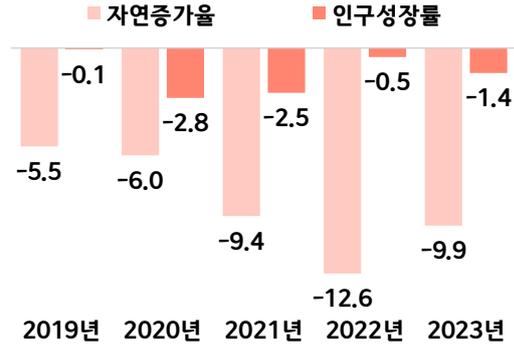
◀ 출생 및 사망 수 ▶

(단위 : 명)



◀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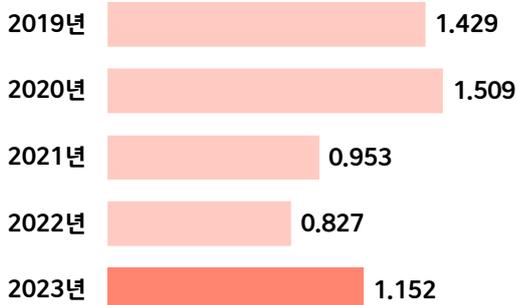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, %)



- ▶ 2023년 장성군 ‘합계출산율’은 1.152명으로 2022년(0.827명) 대비 0.325명 증가함
- ▶ ‘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’은 ‘30~34세’(천 명당 102.9명), ‘25~29세’(천 명당 60.1명), ‘35~39세’(천 명당 37.5명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’은 ‘15~19세’, ‘45~49세’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022년 대비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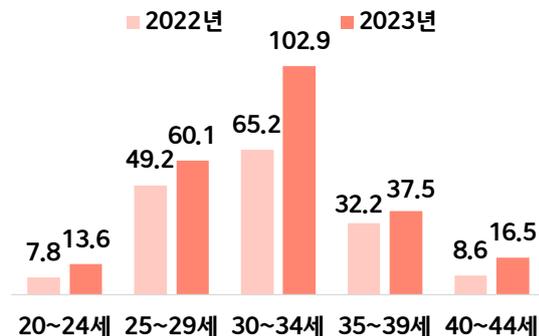
◀ 합계출산율 ▶

(단위 : 가임여성 1명당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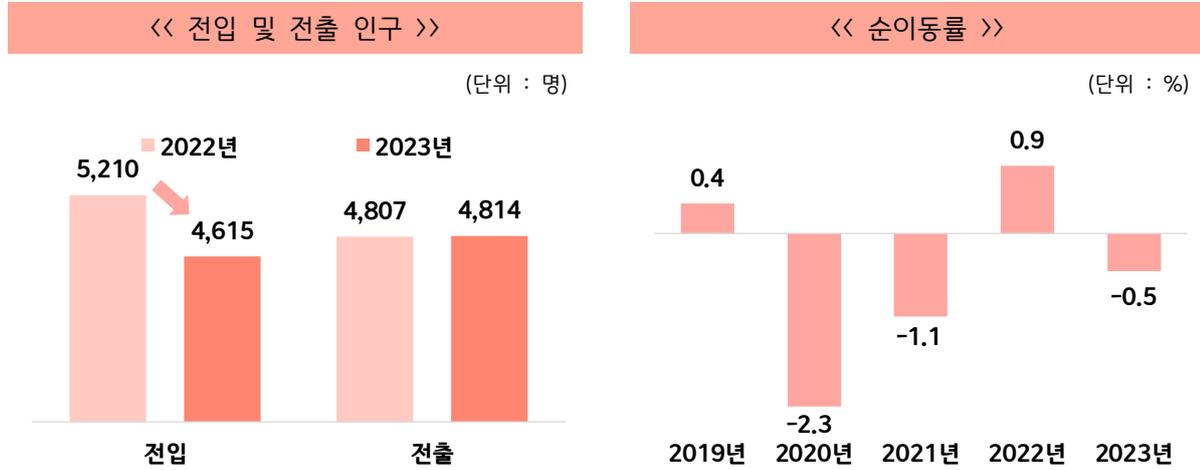


◀ 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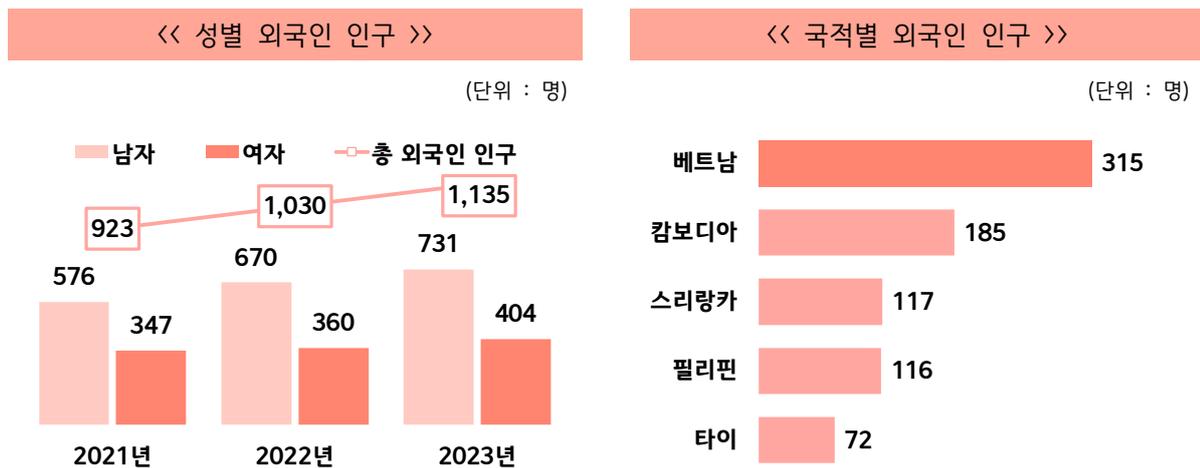
(단위 :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)



- ▶ 2023년 장성군 '전입' 인구는 4,615명으로 2022년(5,210명) 대비 595명 감소했고, '전출' 인구는 4,814명으로 2022년(4,807명) 대비 7명 증가함
- ▶ 2023년 장성군 인구 '순이동'은 -199명으로 2022년(403명) 대비 604명 감소함
- ▶ 인구 '순이동률'은 -0.5%로 2022년(0.9%) 대비 1.4%p 감소함



- ▶ 장성군 '외국인 인구'는 1,135명으로 2022년(1,030명) 대비 105명 증가함
- ▶ 장성군 '외국인 인구' 중 '남자'는 731명으로 2022년(670명) 대비 61명 증가, '여자'는 404명으로 2022년(360명) 대비 44명 증가함
- ▶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'베트남'이 315명으로 가장 많았고, '캄보디아'(185명), '스리랑카'(117명), '필리핀'(116명)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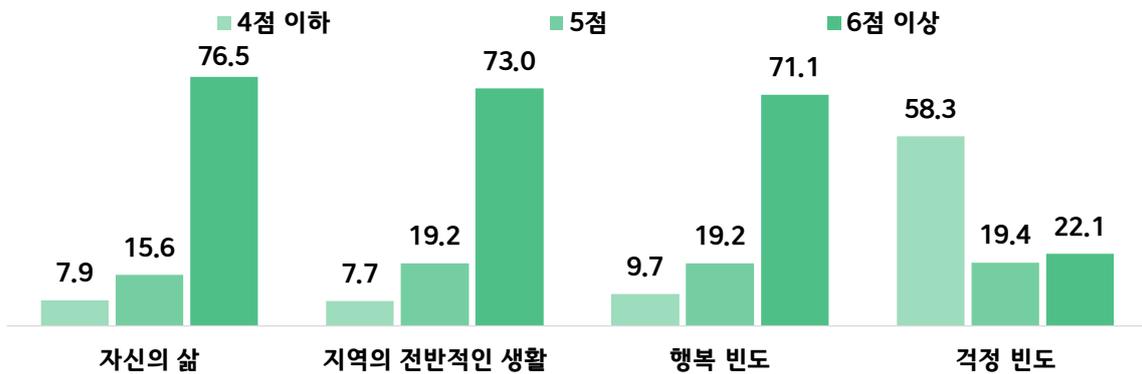
2.

공통 항목

- ▶ 자신의 삶에 대해 ‘대체로 만족(6점 이상)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6.5%로 나타났고,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해 ‘대체로 만족(6점 이상)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3.0%로 나타남
- ▶ 행복 빈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9점으로 전년(6.6점) 대비 0.3점 증가했고, 걱정 빈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.7점으로 전년(4.0점) 대비 0.3점 감소함

<< 삶에 대한 만족감 비율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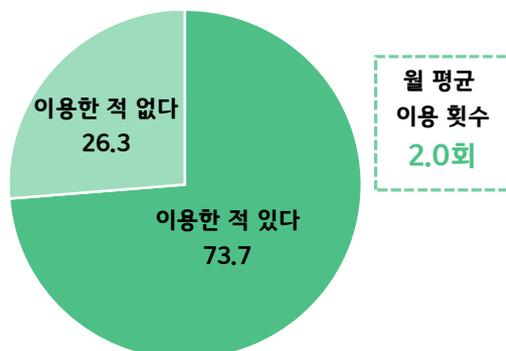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을 ‘이용한 적 있다’고 응답한 군민은 73.7%로 나타남
- ▶ 의료서비스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6.6%로 2022년(56.7%) 대비 10.1%p 감소했고, 의료서비스에 ‘불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8.8%로 2022년(4.8%) 대비 4.0%p 증가함
- ▶ 군민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‘진료 대기 시간 및 입원 대기 시간’이 20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‘의료비가 비싸다’(19.4%), ‘치료 결과가 미흡하다’(13.0%), ‘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’(12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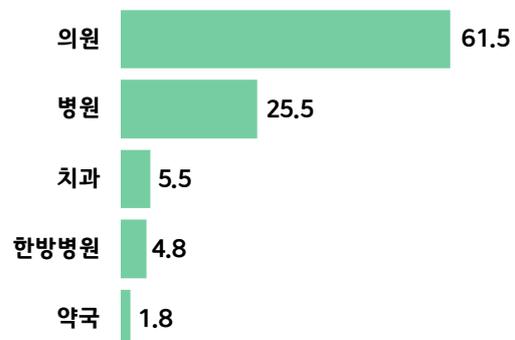
<< 의료기관 이용 비율 >>

(단위 : %)



<< 이용한 의료기관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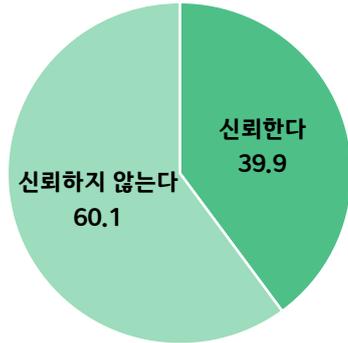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낯선 사람을 '신뢰한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39.9%, '신뢰하지 않는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60.1%로 나타났고, 낯선 사람을 '신뢰한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2022년(37.1%) 대비 2.8%p 증가함
- ▶ 낯선 사람을 '신뢰한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북부권이 65.5%로 가장 높았고, 서부권(49.0%), 중부권(30.3%), 광주인근권(29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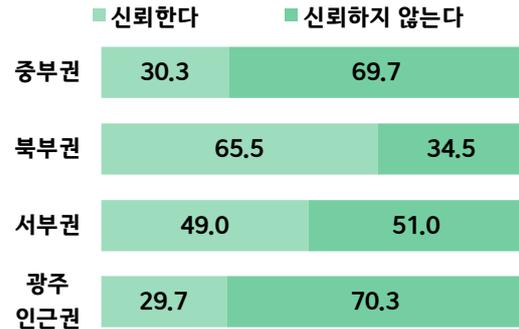
◀◀ 일반인에 대한 신뢰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지역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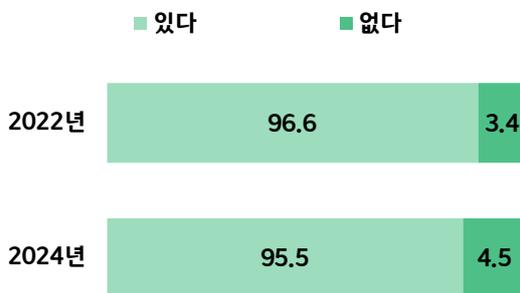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'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95.5%로, 2022년(96.6%) 대비 1.1%p 감소함
- ▶ '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~29세에서 98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30~39세에서 94.3%로 가장 낮게 나타남
- ▶ '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'는 평균 4.1명으로 2022년(4.1명)과 동일하게 나타났고, 남자가 평균 4.4명으로, 여자(3.8명) 대비 0.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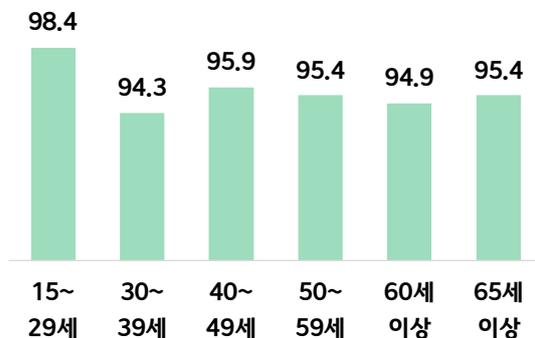
◀◀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▶▶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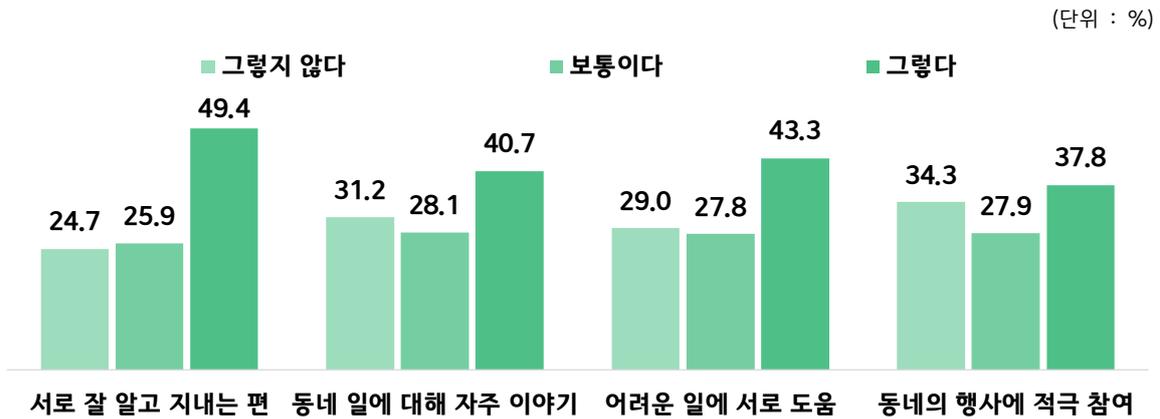
◀◀ 연령별 사회관계별 소통정도(있다) ▶▶

(단위 : %)



- ▶ ‘동네 사람들과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낸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49.4%로 나타났고, ‘보통이다’(25.9%), ‘그렇지 않다’(24.7%) 순으로 나타남
- ▶ ‘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40.7%, ‘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43.3%, ‘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7.8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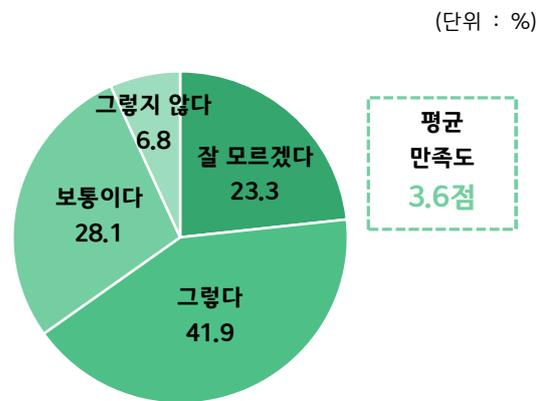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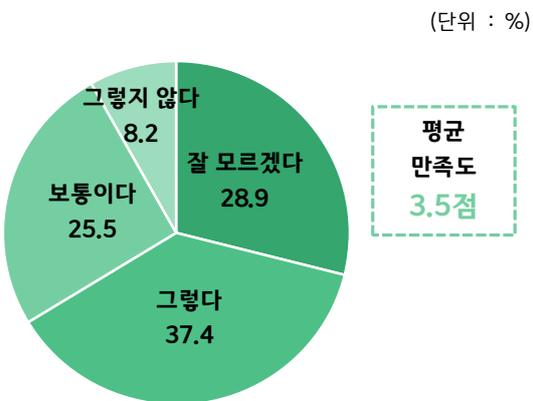
<< 공동체 의식 >>



- ▶ ‘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되고 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7.4%로 나타났고, ‘보통이다’(25.5%), ‘그렇지 않다’(8.2%) 순으로 나타남
- ▶ ‘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41.9%로 나타났고, ‘보통이다’(28.1%), ‘그렇지 않다’(6.8%) 순으로 나타남
- ▶ ‘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’는 평균 3.5점으로, 2022년(3.4점) 대비 0.1점 증가했고, ‘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’는 평균 3.6점으로, 2022년(3.5점) 대비 0.1점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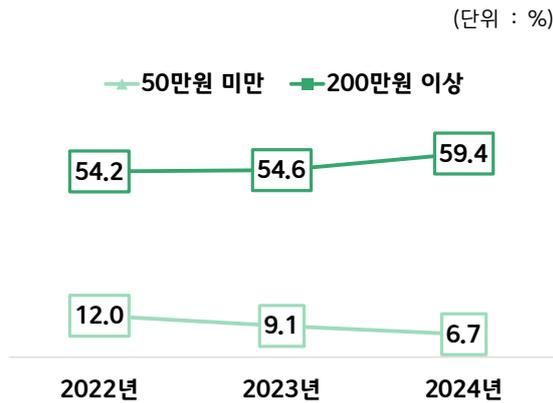
<<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 >>

<<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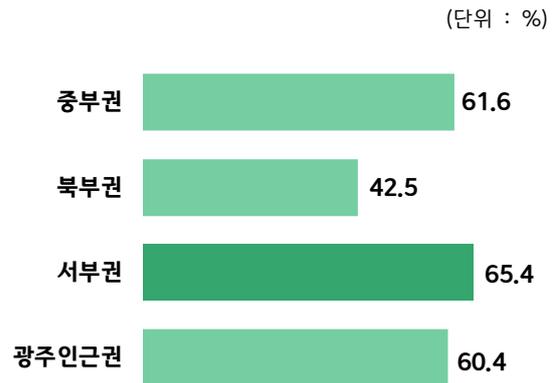


- ▶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이상'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59.4%로 나타났고, 2022년 54.2%, 2023년 54.6%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월평균 소득이 '50만원 미만'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6.7%로, 2022년(12.0%), 2023년(9.1%) 대비 각각 5.3%p, 2.4%p 감소함
- ▶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이상'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서부권이 65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중부권(61.6%), 광주인근권(60.4%), 북부권(42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◀ 가구 월평균 소득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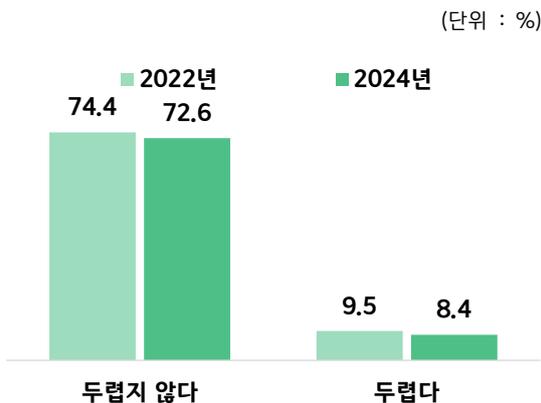


◀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(200만원 이상)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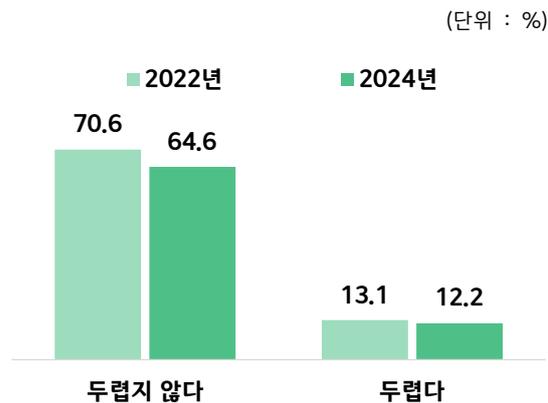


- ▶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'두렵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8.4%로 2022년(9.5%) 대비 1.1%p 감소했고, '두렵지 않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72.6%로 나타남
- ▶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'두렵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12.2%로 2022년(13.1%) 대비 0.9%p 감소했고, '두렵지 않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64.6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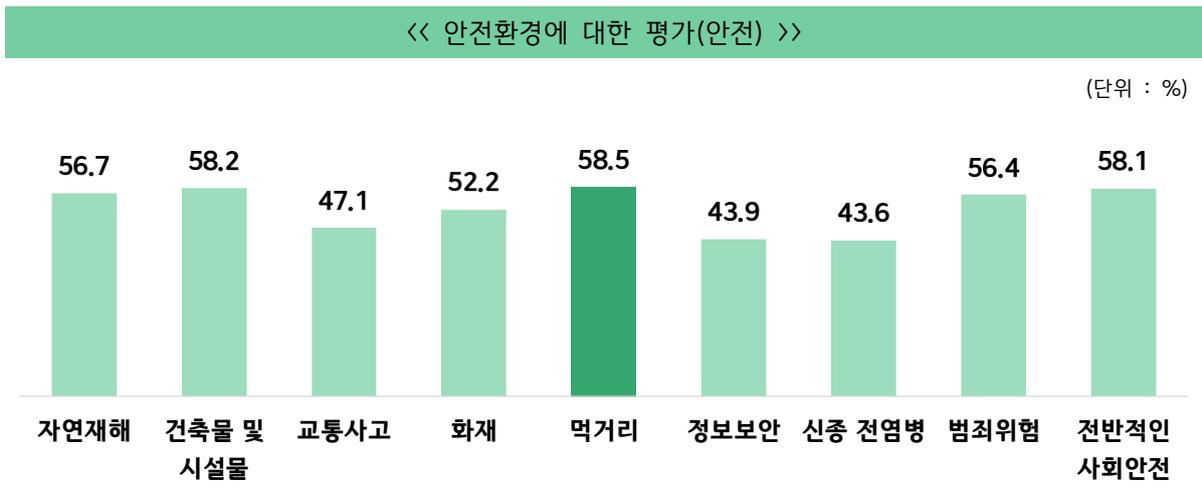
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 ▶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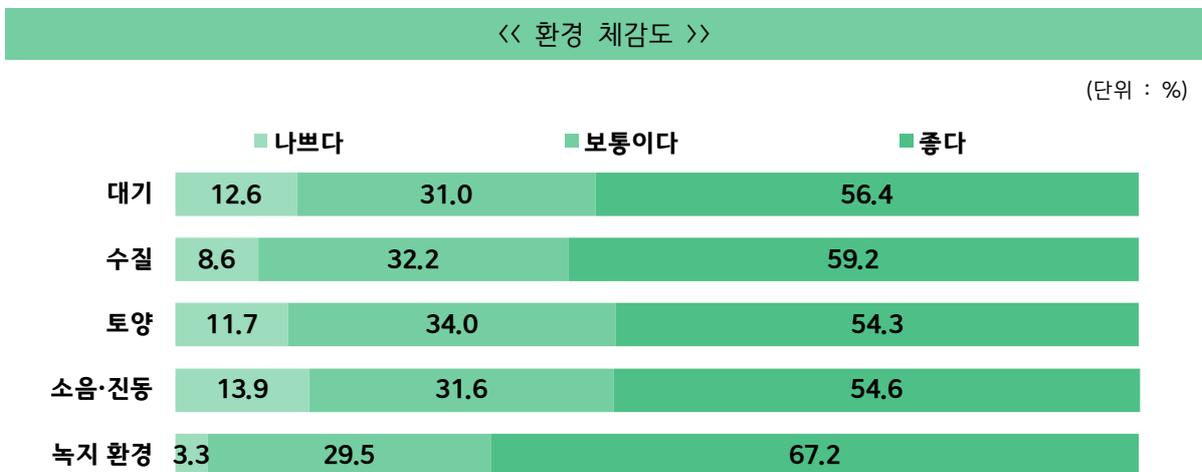
◀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 ▶



- ▶ 자연재해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6.7%,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8.2%, 교통사고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7.1%로 나타남
- ▶ 화재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2.2%, 먹거리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8.5%, 정보보안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3.9%로 나타남
- ▶ 신종 전염병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3.6%, 범죄위험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6.4%,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8.1%로 나타났고,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‘안전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2022년(56.8%) 대비 1.3%p 증가함



- ▶ 환경 체감도가 ‘좋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녹지 환경이 67.2%로 가장 높았고, 수질(59.2%), 대기(56.4%), 소음·진동(54.6%), 토양(54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환경 체감도가 ‘좋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소음·진동에서 2022년(45.9%) 대비 8.7%p 증가, 녹지 환경에서 2022년(59.5%) 대비 7.7%p 증가하는 등 대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2022년 대비 증가함



공통 항목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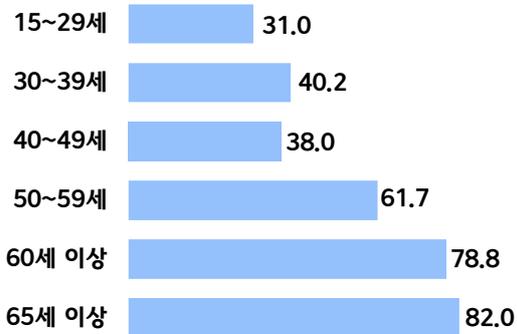
- ▶ 군민의 「자신의 삶」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.0점, 「살고 있는 지역 생활」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9점으로 **장성 군민은 현재 삶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**. 또한 「자신의 삶」과 「살고 있는 지역 생활」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했고(각각 6.7점 → 7.0점, 6.5점 → 6.9점), 행복 빈도는 전년 대비 증가(6.6점 → 6.9점), 걱정 빈도는 전년 대비 감소(4.0점 → 3.7점)함. 따라서 2024년 증액된 부모급여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군민 맞춤형 복지사업이 **군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**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▶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‘만족도 평균’은 3.6점으로 **장성 군민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**. 그러나 ‘긴 진료, 입원 대기시간’(20.2%)이 군민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두됨. 이는 군민이 「보건소 건강증진 사업」으로 희망하는 ‘방문보건’(17.6%) 사업의 확대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**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면,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군민의 수가 감소하여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음**
- ▶ 군민이 가장 ‘불안’하다고 응답한 안전환경 항목은 「신종 전염병」(24.0%)으로 2022년 대비 ‘불안’하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감소했지만(2022년 37.4%), **여전히 「신종 전염병」에 대해 ‘불안’하다고 느끼는 군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**. 실제로 신종 전염병이 재유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**개인 방역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하여 신종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**.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**고령층에 대해 약제 비용 부담 완화 등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, 고령층이 부담 없이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**
- ▶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군민의 비율은 「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」 8.4%, 「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」 12.2%로 **군민 10명 중 1명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야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**. 「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」에 대한 응답과 같이 ‘**방범용 CCTV 확충**’(33.4%), ‘**보안등 설치**’(29.7%)를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, **보도 포장 및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등 ‘보행환경을 개선**’(20.1%)함으로써 **군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**

3. 전라남도 항목

- ▶ 결혼을 '해야 한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61.5%로, 2022년(60.7%) 대비 0.8%p 증가했고, 자녀가 '있어야 한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62.3%로, 2022년(60.8%) 대비 1.5%p 증가함
- ▶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'안정적인 직장 소득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29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▶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'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22.8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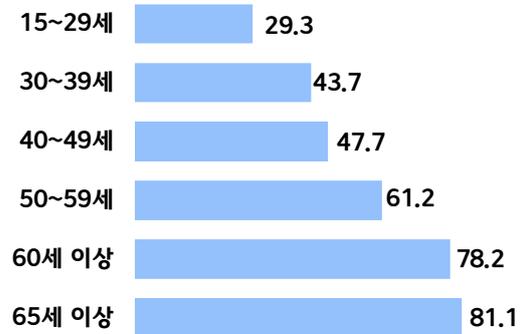
◀ 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(해야 한다) ▶

(단위 : %)



◀ 연령별 자녀에 대한 견해(있어야 한다)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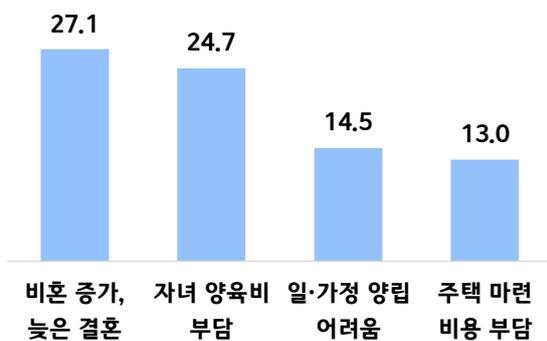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저출산 원인이 '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.1%로 가장 높았고, '자녀 양육비 부담'(24.7%), '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'(14.5%), '주택 마련 비용 부담'(13.0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'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.5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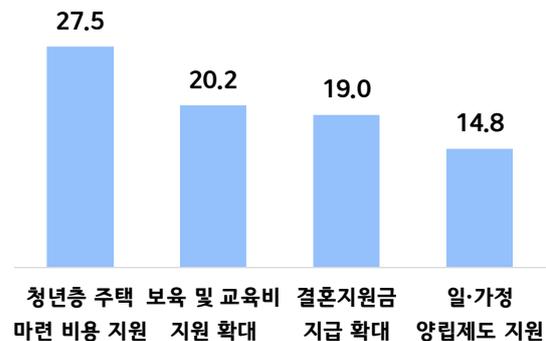
◀ 저출산 원인 ▶

(단위 : %)



◀ 저출산 해결 지원정책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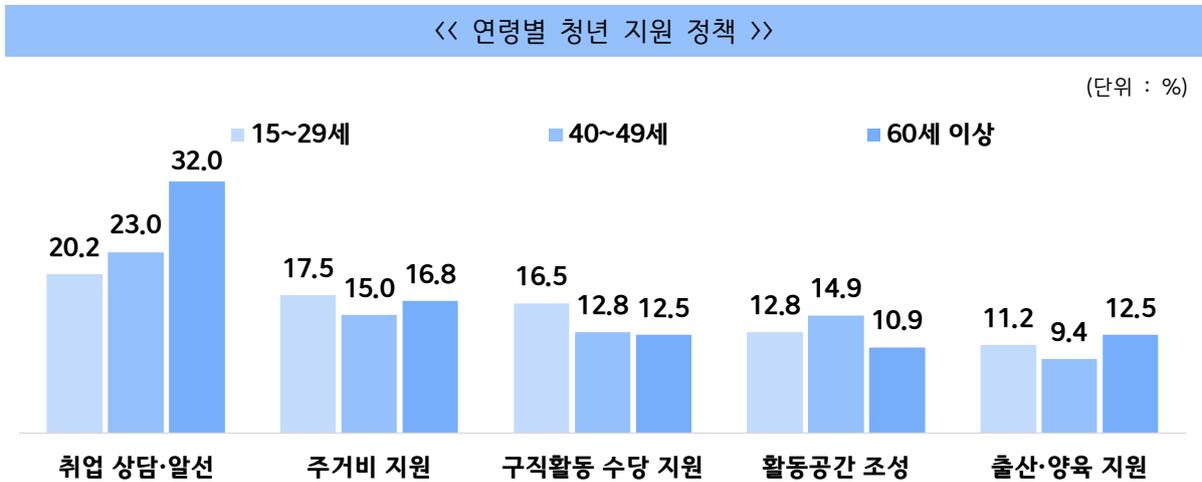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이 '100만원~200만원'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27.0%로 가장 높았고, '50만원~100만원'(25.7%), '200만원~300만원'(16.8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이 '식료품비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4.5%로 가장 높았고, '보건의료비'(18.3%), '주거비'(8.3%), '교통비'(6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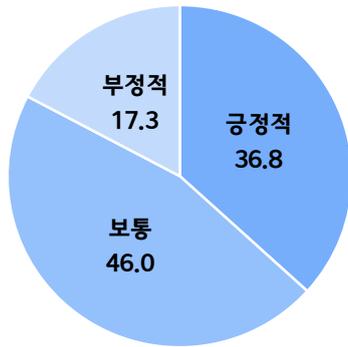
- ▶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 '취업 상담·알선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.8%로 가장 높았고, '주거비 지원'(17.3%), '구직활동 수당 지원'(12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

- ▶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이 '보통이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6.0%로 가장 높았고, '긍정적 인식'(36.8%), 부정적 인식(17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외국인 노동자에 부정적이지 않은 군민 중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'한국어 교육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6.0%로 가장 높았고, '문화 교류 및 적응 프로그램'(22.6%), '주거 지원'(13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◀◀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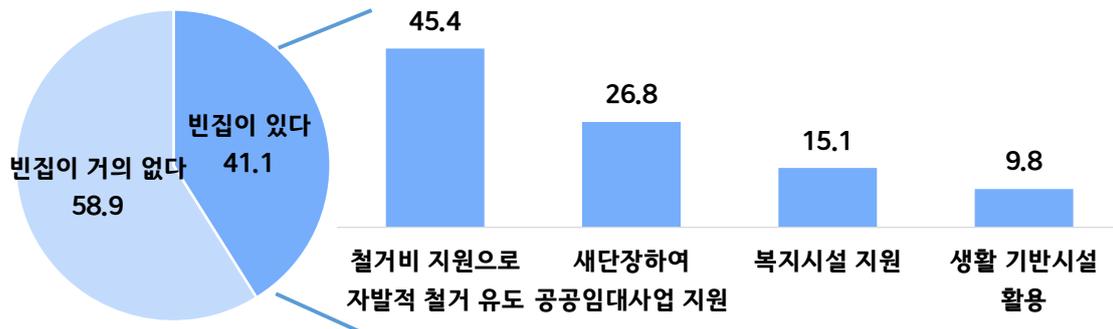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‘빈집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8.9%로, 2022년 (19.1%) 대비 9.8%p 증가했고, 빈집 처리 방안이 ‘철거비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5.4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◀◀ 빈집 여부 및 빈집 활용방안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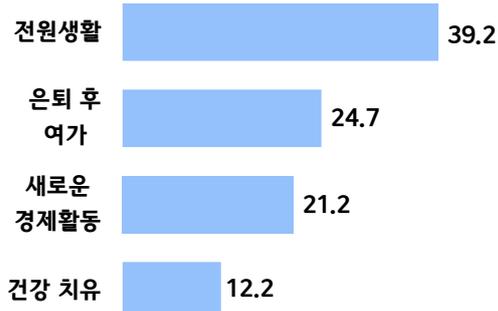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귀농어·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‘전원생활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9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귀농어·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‘귀농어·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 지원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1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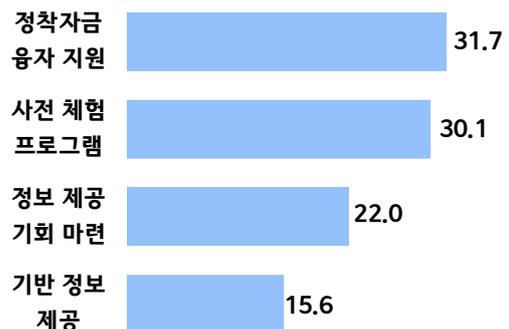
◀◀ 귀농어·귀촌 이유 ▶▶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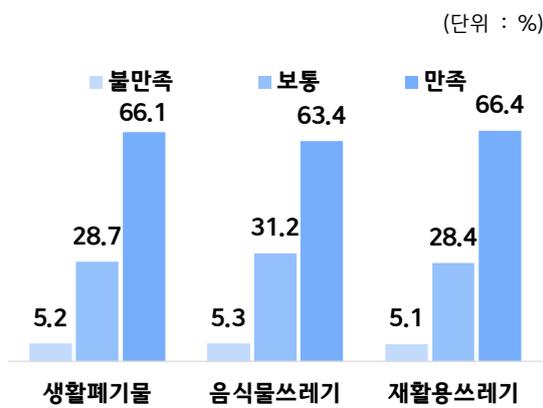
◀◀ 귀농어·귀촌 지원정책 ▶▶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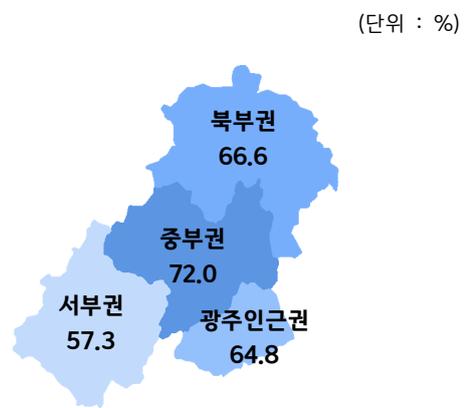


- ▶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6.1%,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3.4%,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6.4%로 나타남
- ▶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중부권에서 72.0%로 가장 높았고, 북부권(66.6%), 광주인근권(64.8%), 서부권(57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‘빨리 가져가지 않아서’(21.8%),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‘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’(50.8%, 33.4%)로 나타남

◀◀ 쓰레기 처리 만족도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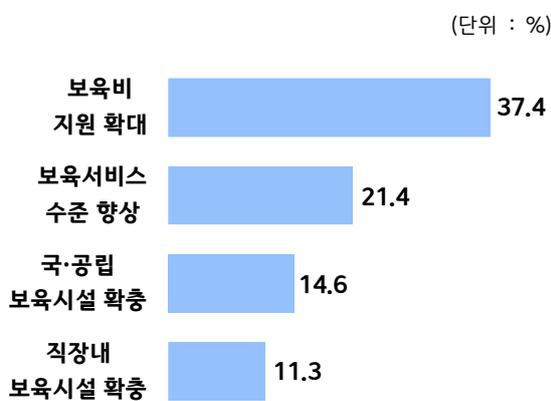


◀◀ 지역별 재활용 쓰레기 처리 만족도(만족)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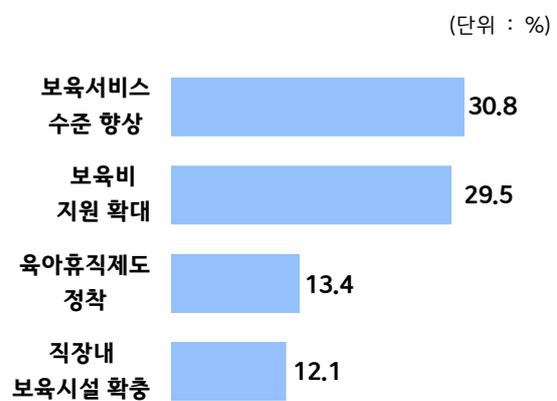


- ▶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‘보육비 지원 확대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7.4%로 가장 높았고, ‘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’(21.4%), ‘국·공립 보육시설 확충’(14.6%), ‘직장내 보육시설 확충’(11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30~39세 군민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‘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’(30.8%)이라고 응답함

◀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▶▶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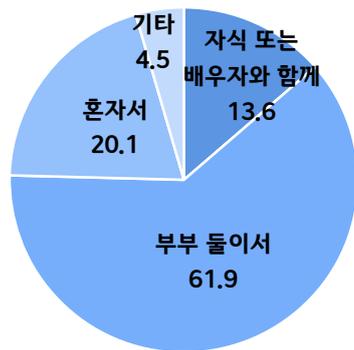
◀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(30~39세) ▶▶



- ▶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가 ‘부부 둘이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1.9%로 가장 높았고, ‘혼자서’(20.1%), ‘자식 또는 배우자와 함께’(13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노후 생활을 ‘부부 둘이서’ 보내고 싶은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는 ‘자택’(66.8%), ‘전원주택’(15.9%), ‘실버타운’(12.5%), ‘요양원’(2.1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노후 생활을 ‘혼자서’ 보내고 싶은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는 ‘자택’(57.7%), ‘실버타운’(20.3%), ‘요양원’(8.9%), ‘전원주택’(8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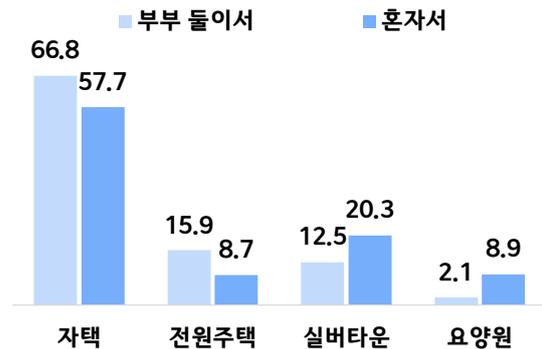
◀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 ▶

(단위 : %)



◀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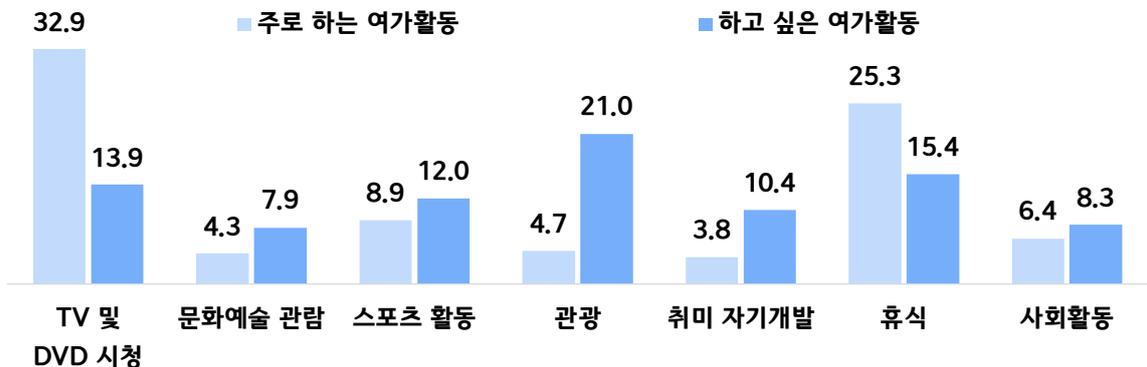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‘TV 시청 및 DVD 시청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.9%로 가장 높았고, ‘휴식’(25.3%), ‘스포츠 활동’(8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‘관광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1.0%로 가장 높았고, ‘휴식’(15.4%), ‘TV 시청 및 DVD 시청’(13.9%), ‘스포츠 활동’(12.0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◀ 여가활동 ▶

(단위 : %)



- ▶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'방법용 CCTV 확충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3.4%로 가장 높았고, '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 지역 해소'(29.7%), '보행환경 개선'(20.1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'매뉴얼 및 제도정비, 의식 상승 홍보 및 교육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~29세에서 17.9%로 가장 높았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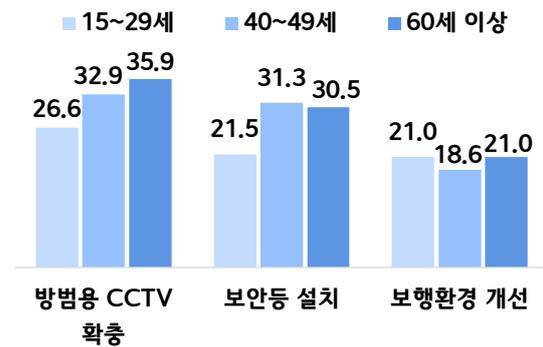
◀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▶

(단위 : %)



◀ 연령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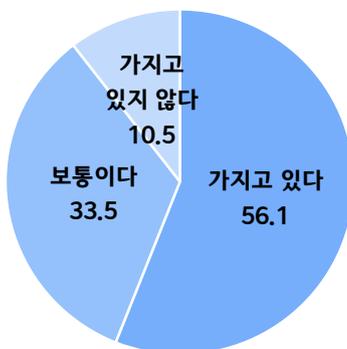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'가지고 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6.1%로 2022년(58.9%) 대비 2.8%p 감소함
- ▶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'가지고 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북부권에서 64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▶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'가지고 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68.8%로 가장 높았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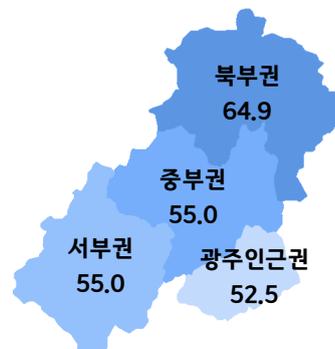
◀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▶

(단위 : %)



◀ 지역별 소속감 및 자부심(가지고 있다) ▶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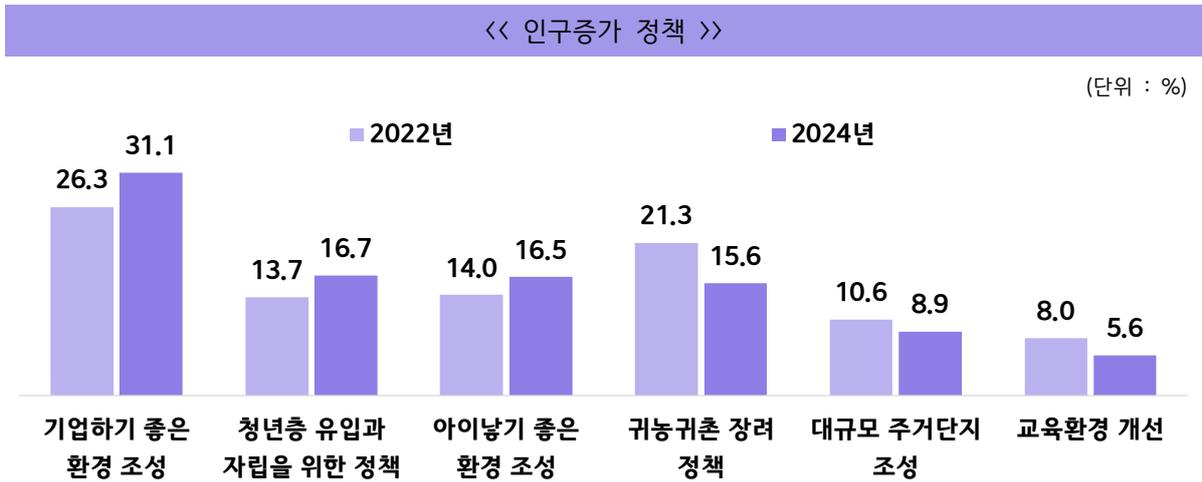
전라남도 항목 총괄

- ▶ 2023년 장성군 '합계출산율'은 1.152명으로 전년(0.827명) 대비 0.325명 증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. 그러나 여전히 OECD 초저출산 기준인 1.3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**저출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**. 군민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'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지원'(27.5%), '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'(20.2%), '결혼지원금 지급 확대'(19.0%) 등으로, 군민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**청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** 응답함. 따라서 전남 **청년희망디딤돌 통장과 같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** 등의 시행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▶ 「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」이 '식료품비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4.5%로, '식료품비'는 가구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 특히 식료품비를 '장성 관내'에서 구입하는 군민은 88.5%로, **장성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군민의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**. 타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 사례로 보아, **단순히 매장 수를 늘리기보다 교통 접근성을 늘리고 매장 대형화 등 효율성을 증대한다면**, 군민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**'합리적인 상품가격'(31.9%)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**. 합리적인 상품가격을 제공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식료품비에 대한 군민의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
- ▶ 군민은 장성군 쓰레기 처리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(모든 세부 항목 '만족' 63.4% 이상).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,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(각각 5.3%, 5.1%) 군민 중 **'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'(50.8%, 33.4%) 만족하지 못하는 군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**. 따라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**마을 단위로 쓰레기 집하장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** 쓰레기 보관 장소를 증설한다면, 군민의 쓰레기 처리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
- ▶ 「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」을 '가지고 있다'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므로, **청년층이 소속감 및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**. 2025년 착공에 들어가는 **장성군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, 창업 활성화 등 청년들의 커뮤니티 허브로서 성장한다면, 청년층의 지역 소속감 및 자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**

4.

장성군 특성 항목

- ▶ 인구증가 정책으로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1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‘청년층 유입과 자립을 위한 정책’(16.7%), ‘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’(16.5%), ‘귀농귀촌 장려 정책’(15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

- ▶ 현 거주지 거주 사유로 ‘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3.9%로 가장 높았고, ‘직장 및 일자리’(20.3%), ‘주택문제’(14.1%), ‘공기·녹지 등 자연환경’(10.2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북부권의 경우 ‘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1.6%로 타 지역권 대비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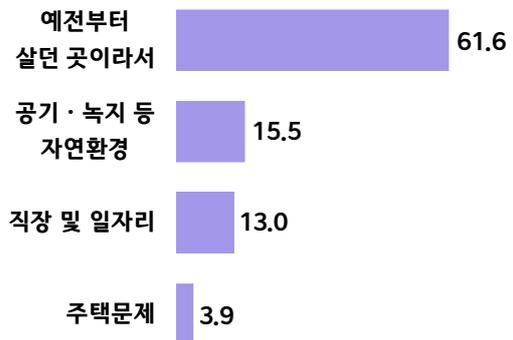
◀◀ 거주지 거주 사유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거주지 거주 사유(북부권)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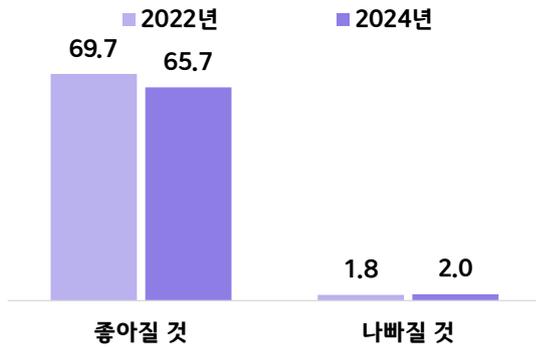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5년 후 생활여건이 ‘좋아질 것이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5.7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‘변함이 없을 것이다’(23.0%), ‘잘 모르겠다’(9.4%), ‘나빠질 것이다’(2.0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좋아질 것이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71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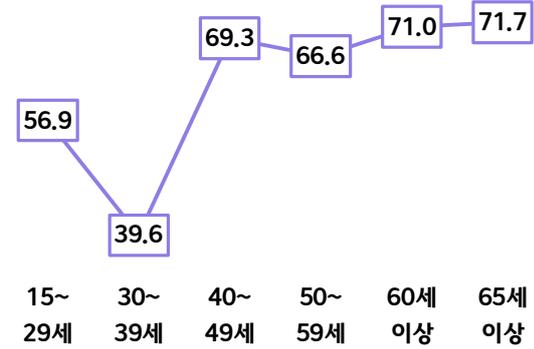
◀◀ 생활여건 변화 기대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연령별 생활여건 변화 기대(좋아질 것이다)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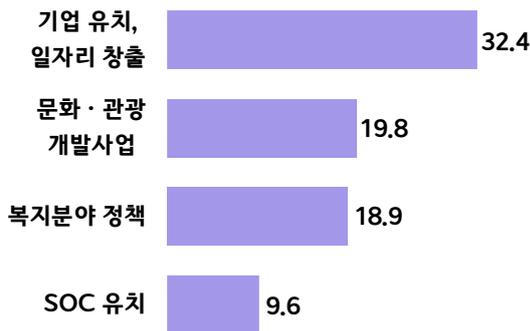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으로 '기업 유치, 일자리 창출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.4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▶ '도시개발 관련 정책'의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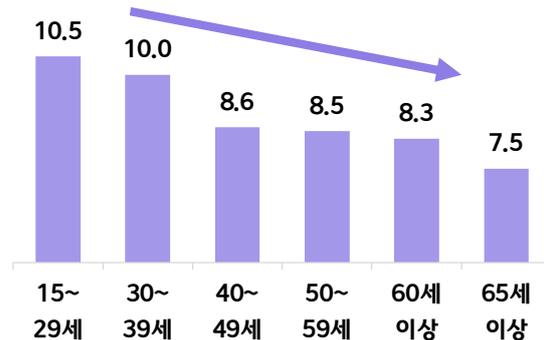
◀◀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연령별 도시개발 관련 정책 응답률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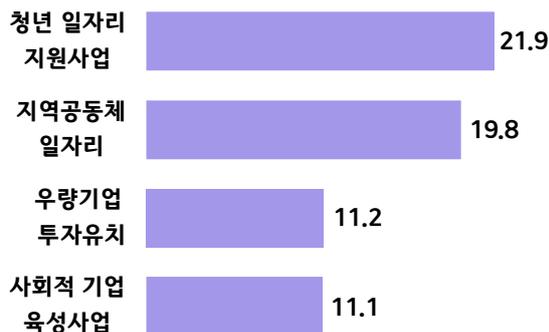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으로 '청년 일자리 지원사업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1.9%로 가장 높았고, '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'(19.8%), '우량기업 투자유치'(11.2%), '사회적 기업 육성사업'(11.1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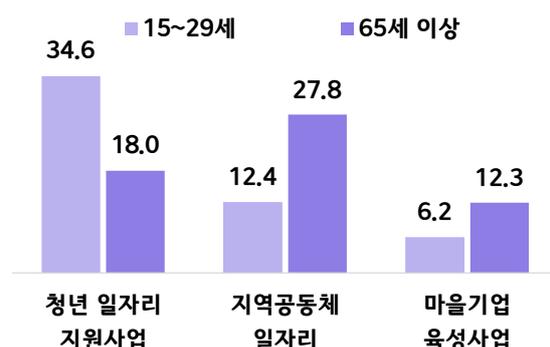
◀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연령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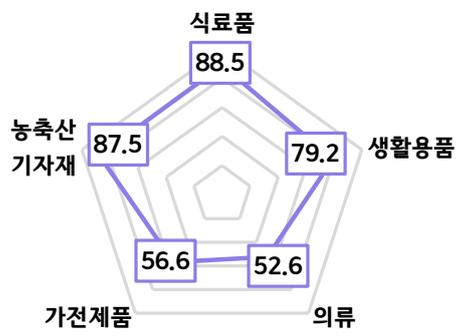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식료품을 ‘장성 관내’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88.5%, 생활용품을 ‘장성 관내’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79.2%, 의류를 ‘장성 관내’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2.6%, 가전제품을 ‘장성 관내’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6.6%, 농축산기자재를 ‘장성 관내’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87.5%로 나타남
- ▶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‘다양한 제품이 있어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식료품 34.2%, 생활용품 37.4%, 의류 45.2%, 가전제품 43.8%, 농축산기자재 37.1%로 모든 품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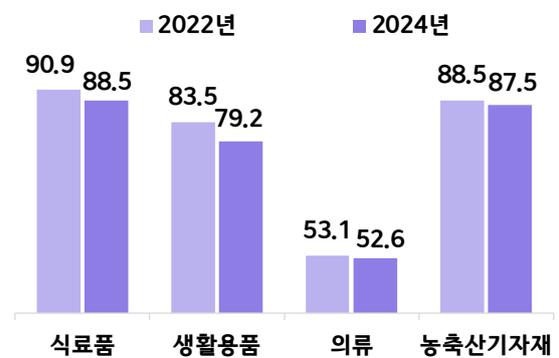
◀◀ 물품구입지역(장성 관내)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연도별 물품구입지역(장성 관내)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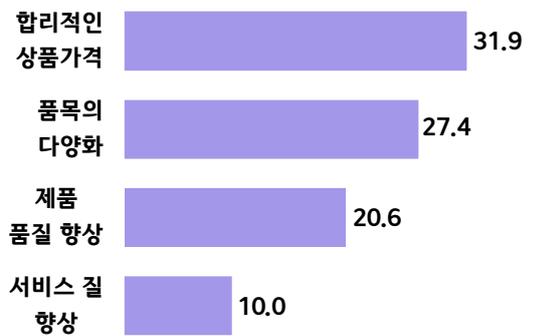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‘합리적인 상품가격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1.9%로 가장 높았고, ‘품목의 다양화’(26.9%), ‘제품 품질 향상’(20.6%), ‘서비스 질 향상’(10.0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서비스 질 향상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중부권, 광주인근권에서 각각 12.9%, 12.6%로 북부권, 서부권(4.1%, 6.5%) 대비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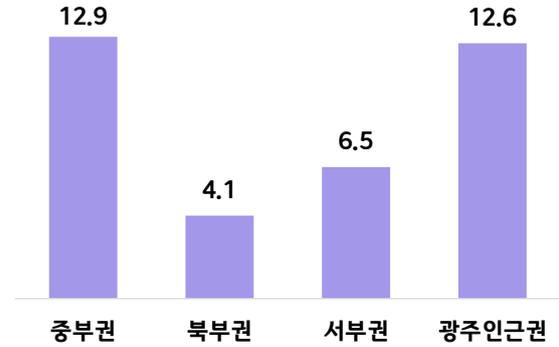
◀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지역별 서비스 질 향상 응답률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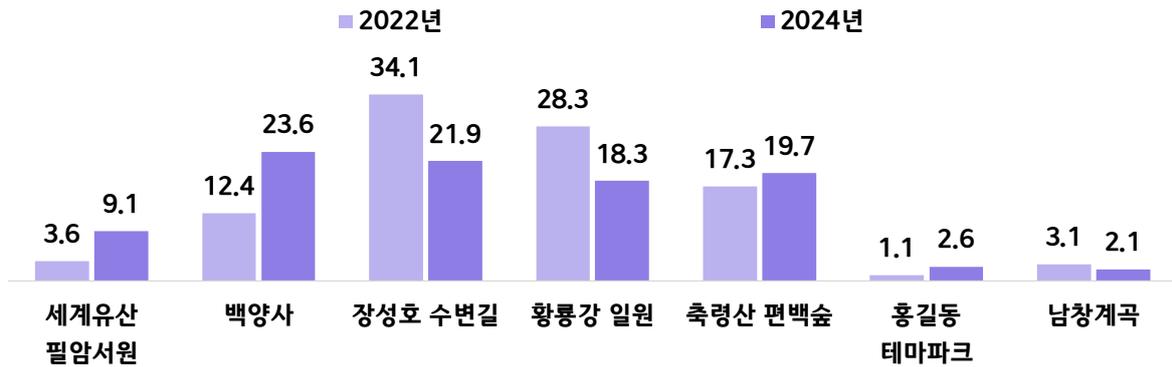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가장 소개하고 싶은 지역 관광지로 ‘백양사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3.6%로 가장 높았고, ‘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’(21.9%), ‘축령산 편백숲’(19.7%), ‘장성 황룡강 일원’(18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백양사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2년(12.4%) 대비 11.2%p 증가했고, ‘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’, ‘장성 황룡강 일원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2년(34.1%, 28.3%) 대비 각각 12.2%p, 10.0%p 감소함

<< 소개하고 싶은 지역 관광지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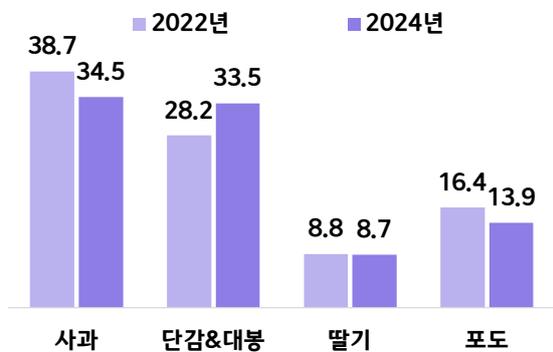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장성군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특화작목으로 ‘사과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4.5%로 가장 높았고, ‘단감&대봉’(33.5%), ‘포도’(13.9%), ‘딸기’(8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특화작목 추천 이유로 ‘맛과 품질이 우수하므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3.9%로 가장 높았고, ‘장성군을 대표하는 품목이므로’(24.9%), ‘농가소득이 큰 품목이므로’(20.4%), ‘기후요건에 가장 적합하므로’(6.8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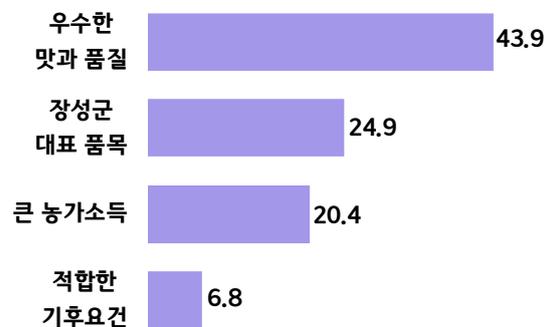
<< 집중 육성해야 할 특화작목 >>

(단위 : %)



<< 품목 추천 이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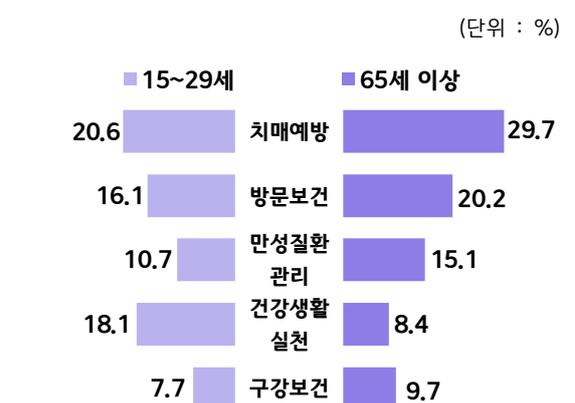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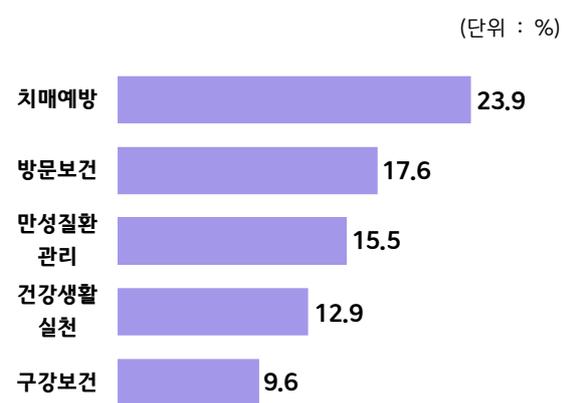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건소 사업으로 ‘치매예방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3.9%로 가장 높았고, ‘방문보건’(17.6%), ‘만성질환 관리’(15.5%), ‘건강생활 실천’(12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15~29세의 경우 ‘건강생활 실천’의 응답률이 18.1%로 65세 이상(8.4%) 대비 9.7%p 높게 나타나고, ‘치매예방’의 응답률이 20.6%로 65세 이상(29.7%) 대비 9.1%p 낮게 나타남

◀◀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건소 사업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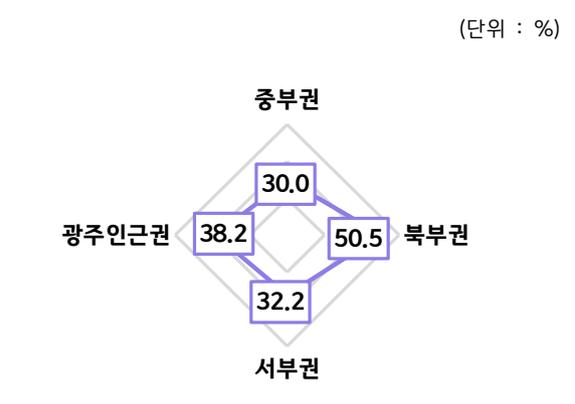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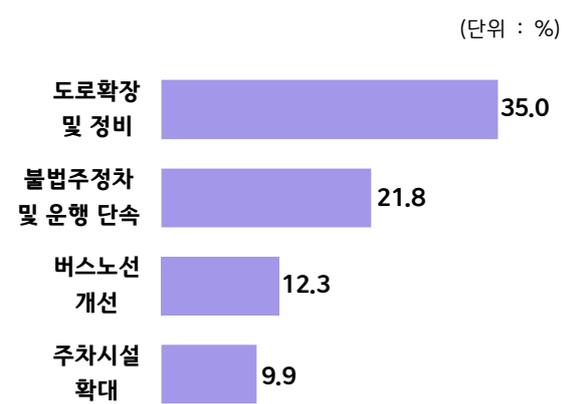
◀◀ 연령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건소 사업 ▶▶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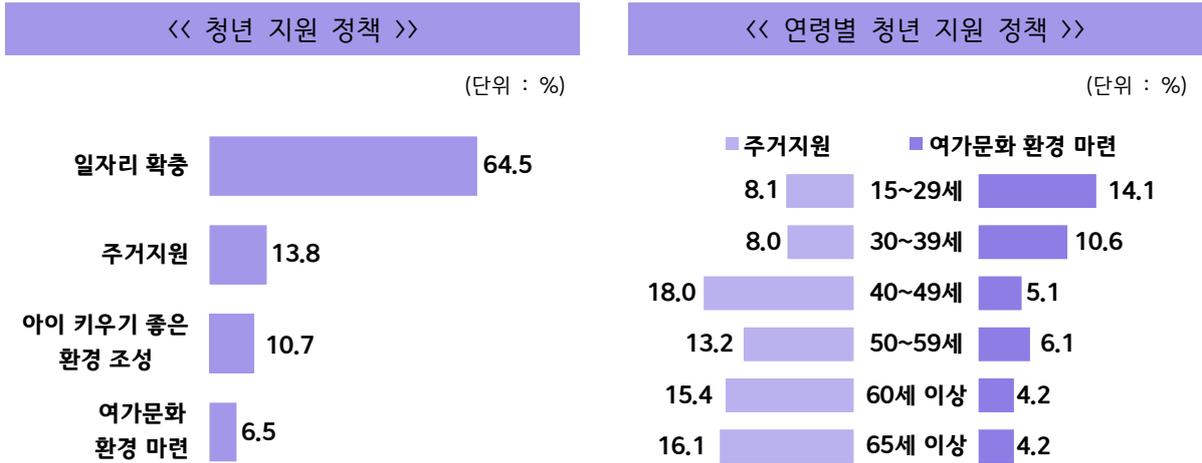
- ▶ 장성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‘도로 확장 및 정비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5.0%로 가장 높았고, ‘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’(21.8%), ‘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 횟수 확대’(12.3%), ‘주차시설 확대’(9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북부권의 경우 ‘도로 확장 및 정비’의 응답률이 50.5%로 타 지역권 대비 높게 나타남

◀◀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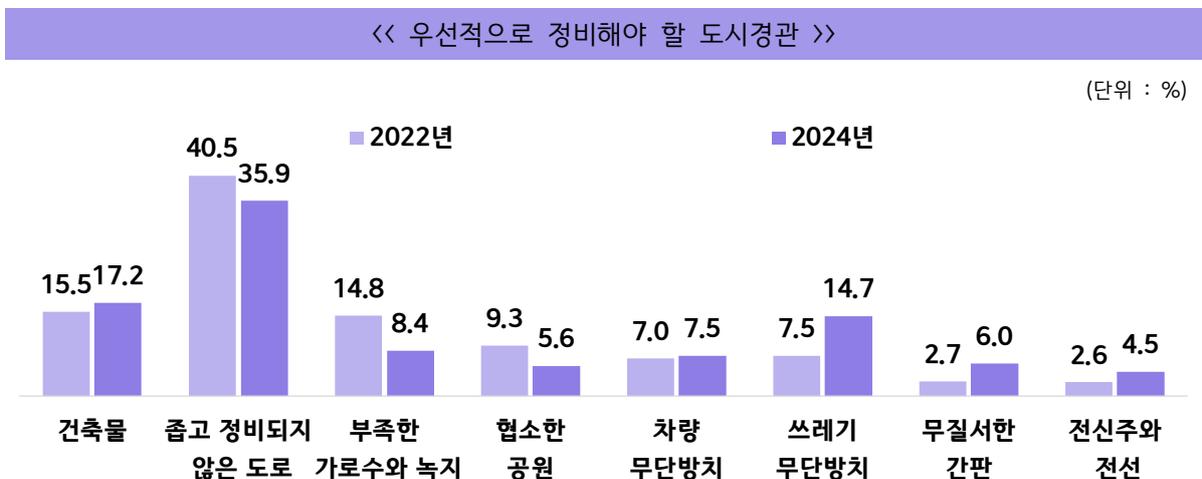
◀◀ 지역별 도로확장 및 정비 응답률 ▶▶



- ▶ 청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‘일자리 확충 및 취업 지원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4.5%로 가장 높았고, ‘주거지원’(13.8%), ‘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’(10.7%), ‘여가문화 환경 마련’(6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주거지원’의 경우 15~29세, 30~39세의 응답률이 각각 8.1%, 8.0%로 타 연령대 대비 낮게 나타남
- ▶ ‘여가문화 환경 마련’의 응답률은 15~29세에서 14.1%, 65세 이상에서 4.2%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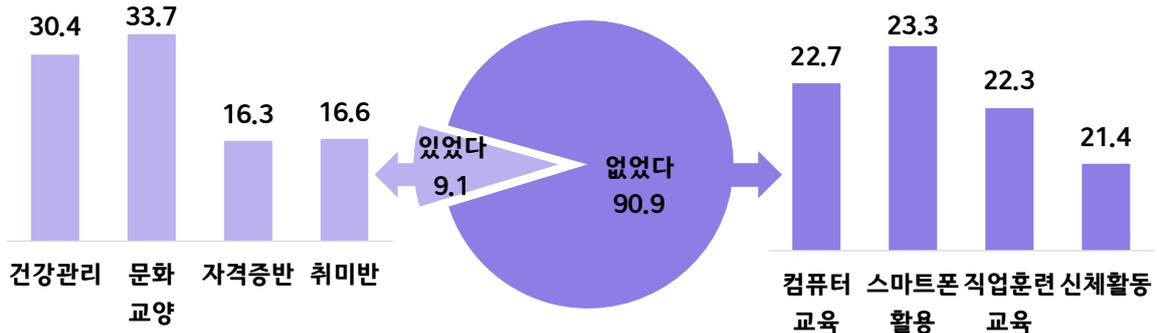
- ▶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도시경관으로 ‘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5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‘건축물’(17.2%), ‘쓰레기 무단방치’(14.7%), ‘부족한 가로수와 녹지’(8.4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북부권의 경우 ‘건축물’, ‘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’의 응답률이 각각 22.7%, 45.0%로 타 지역권 대비 높게 나타나며, ‘부족한 가로수와 녹지’, ‘차량 무단방치’의 응답률이 각각 2.9%, 3.4%로 타 지역권 대비 낮게 나타남



- ▶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'있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9.1%로 2022년 (8.6%) 대비 0.5%p 증가했고,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'있었다'라고 응답한 군민 중 평생교육을 '관내'에서 경험한 군민은 79.4%, '관외'에서 경험한 군민은 20.6%로 나타남
- ▶ 군민이 가장 많이 수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'문화·교양'(33.7%)으로 나타남
- ▶ 가장 지원이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'스마트폰 활용'(23.3%)으로 나타남

<< 평생교육 수강여부, 수강한 프로그램 분야, 지원해야 할 평생교육 프로그램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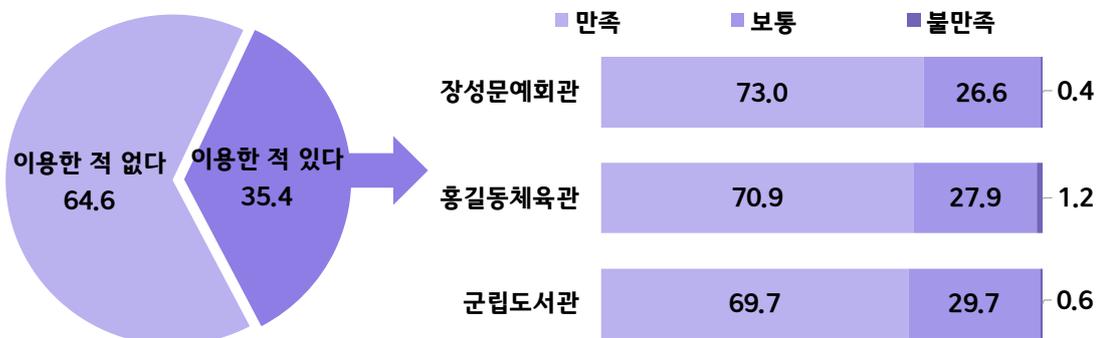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장성군 문화체육시설을 '이용해본 적이 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5.4%로 나타났고, 2022년(25.9%) 대비 5.9%p 증가함
- ▶ 문화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군민 중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'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장성문예회관 73.0%, 홍길동체육관 70.9%, 군립도서관 69.7%로 나타남
- ▶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'시간이 없어서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장성문예회관 50.0%, 홍길동체육관 52.4%, 군립도서관 53.0%로 나타남

<< 문화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>>

(단위 : %)



장성군 특성 항목 총괄
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‘일자리 창출’(31.1%, 32.4%)로, **일자리 창출은 장성군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판단됨**. 이때 장성군에 설립될 **국립 심뇌혈관연구소와 데이터센터**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2027년 착공을 앞둔 국립 심뇌혈관연구소는 **10,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**. 또한, **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**을 계기로 장성군이 첨단 산업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한다면, **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우수 인재를 유입하는 효과**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▶ 군민이 「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」에서 알 수 있듯 ‘백양사’(23.6%), ‘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’(21.9%), ‘축령산 편백숲’(19.7%), ‘장성 황룡강 일원’(18.3%) 등 **장성군은 자연 친화적인 여러 관광지를 보유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임**. 실제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으며, 장성호 관광지 일원에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관광객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이때 **백양사 사찰음식 등 지역 특화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, 관광지 일대에 숙박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킨다면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**
- ▶ 군민은 가장 「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도시경관」을 ‘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’(35.9%)라고 응답했고,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‘도로 확장 및 정비’(35.0%)라고 응답함. **도시경관이 정비되고 교통 문제가 개선된다면,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, 도로의 확장 및 정비는 장성군에서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**
- ▶ 장성군의 체육시설은 **이용 만족도가 높지만**(홍길동체육관 이용 ‘만족’ 비율 70.9%), **이용하지 않는 군민이 더 많은 실정임**(‘이용해본 적이 있다’ 35.4%). 이때 2025년 전라남도체육대회,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대대적인 체육시설 개선에 나선 만큼, **장성군의 체육시설은 우수한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됨**. **유인물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군민과 인근지역의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, 장성군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**